

규제·경기침체·저금리 3災... ‘모바일 앱’ 승패 좌우

2020 저축은행 전망

작년 ‘사상최대 실적’과 상반돼 IT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개선 등 사업규모 확장보다 내실에 집중

올해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각종 규제 도입과 경기침체,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이 도입한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도입 등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는 약 1조2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을 오픈하고 해외송금 업무 허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 완화 등 영업 규제가 개선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는 가계대출총량규제, 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66개 저축은행을 한 곳에 SB 특독 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통합 비대면 채널 서비스 ‘SB 특독플러스’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있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연 20%까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운영을 위한 상황은 좋지 않다는 평가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밝지만은 않다”며 “각종 규제도 입 영향과 경기침체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오픈뱅킹 등 디지털금융 경쟁 가속화로 저축은행의 경쟁력 약화에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보다 내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IT 경쟁력을 높여 자체 영업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휴대전화에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폐쇄적이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버리고 핀테크 기술을 한 것 적용한 기술로 지난해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금융권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체들 또한 자

체적인 IT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한창이다. 우선 66개의 저축은행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뱅킹 애플리케이션 ‘SB 특독 플러스’를 출시, 이후 ‘금리 노마드’ 현상에 힘입어 고객들이 대거 유입됐다.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 상품을 찾아 나서는 고객이 유입되면서 동시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또한 대폭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사이드뱅크를 운영, 20~40대의 신규 고객이 주를 이루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자사 애플리케이션 ‘웰뱅’을 3.0버전으로 개선해 플랫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버전에는 고객 개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최근 웰뱅은 다운로드수 100

만건, 누적거래액 2조2500억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생활 금융 플랫폼 앱으로 ‘주거래 저축은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플랫폼으로서 웰뱅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뱅킹을 선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K저축은행은 그룹사에서 전 계열사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술이 비대면 채널 서비스에 적용된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저축은행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룹내부 전산서버까지 전체적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JT저축은행도 오픈뱅킹 도입에 앞서 애플리케이션 베타 테스트가 한창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앱 서비스 개발이 수익에 판가름할 것”이라며 “현재 개발은 다 완료된 상태이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JT저축은행의 앱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SPC·부동산법인 신용제한 IB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IB자금, 벤처·중소로 가게할 것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노력할”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IB의 자금이 벤처·중소기업에 흐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IB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모험자본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PF)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은 위원장은 “IB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성장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입 취지와 달리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IB의 영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IB신용공여대상의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의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슈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

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그룹

사내벤처제도 도입 ‘혁신 DNA’ 키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내벤처 제도인 ‘우리 어드벤처(A-D Venture)’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어드벤처는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모험심 강한 벤처집단을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올 1분기 중으로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업·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작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우리 어드벤처 제도의 체계적 육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가장 큰 한계와 약점으로 거론되는 금융회사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리스크 회피적 업무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 그룹사 임직원이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는데 있어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실패는 용인함으로써 도전정신에 기반한 ‘혁신DNA’를 심을 계획이다.

소규모 자발적 혁신조직인 우리 어드벤처의 운영으로 스타트업의 장점인 신속한 실행력·개방형 혁신·도전하는 문화를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소요건으로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고객 반응을 측정해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신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국민연금, 대한항공 지분 확대... 한진家 ‘초진장’

주식 지분 9.90%→11.36% 늘어

내년 3월 열리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늘려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기준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종전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전체 지분 가운데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이

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6.49%,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주요 주주로는 ▲KCGI(강성부펀드) 17.29% ▲델타항공 10% ▲대호개발 6.28% ▲국민연금 4.11% 등이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림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는 국민연금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최근 한진가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과 달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총수 일가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주주들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메니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아가 언쟁을



대한항공의 보잉 737-900ER 항공기./대한항공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